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5호 [루게 제25318호] 주제 105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주체조선의 국방력 일대 과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밝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리정표따라 총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 총공격전, 총돌격전을 전개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새로운 전략무기시험발사에서 성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방과학부문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속에서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만전 동지, 리병철 동지, 김정식 동지, 유진 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락경 동지, 정치위원 전략군 중장 박영매 동지가 맞이하였다.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락탄되었다.

시험결과 체계물 현대화한 우리 식 탄도로켓의 비행동력학적특성과 안정성 및 조종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특성이 입증되었으며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 열전달특성과 비행안정성도 점검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전략무기체계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전략무기의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서 70일전투와 마찬가지로 200일전투의 창조대전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우렁차게 울려 조국강산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깊이 관심하시며 수백리 밤길을 달려 발사장을 찾으시고 시험발사 전 공정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는 김정은 동지를

비움은 일군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 계획을 청취하시고 시험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는 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발사대를 리달한 탄도로켓은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비행하여 400km

진감시키였다고, 참으로 통쾌하고 기승후련한 이 승전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우리의 힘,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일대 장거로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 편 으 로 계 속



주체조선의 국방력 일대 과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전략무기개발과정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하고 우리 당의 권위와 영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자기 영도자,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애국충정의 피를 뿜뿜 끓이며 당에서 고도로 중시하고있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은 물론 전세계가 이번 탄도로켓의 비행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제적 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파 적은 핵전쟁 그자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세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과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핵공격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 국가의 핵공격능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전략적핵무력에 대한 유일적경도와 유일적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을 축하

하며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전사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국방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은 수차례나 실험을 거듭하면서 완성시켜온 탄도로켓개발의 화려한 시간들을 꿰어오르는 격정속에 돌이켜보면서 실패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더 큰 사명과 믿음을 주시고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성공에로 이끌어주신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으며 모진 시련도, 곱씹이는 난관도 이겨내시며 우리 나라를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펼쳐나 전략적 공격수단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국방과학연구와 군수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주체조선의 국방력 일대 과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순천시당위원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순천시당위원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가 22일에 진행되였다.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와 순천시의 일군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오동진 순천시당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55(1968)년 6월 23일 순천군당위원회(당시)를 주소 찾으시어 당시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서 수령님께서는 군당위원회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일군들이 당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며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군당위원회를 찾으시어 당일군대원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사람들로 꾸리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시업에서 풀이해나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순천시의 당사업에서 혁명전환이 일어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한층 단단히 하는 용언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풀이하고 현실적으로 두정함으로써 순천시가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한층 단단히 하는 용언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

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불고나가며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하겠소니다.》

보고자는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불고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하겠소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일군대원을 잘 꾸리며 당일군대원을 근로본적으로 개선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이 당시업에서 남은 것을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달라는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가는 인민의 참된 중부이 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이 정치사상사업을 힘입적으로 벌려 시인의 이르는

뜻바다에서 우리 당의 혁명정신이 맥박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떠오르게 하여야 하겠소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력과 석탄생산을 결성적으로 높이고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과학농사, 다수확농사업종을 일으켜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며 남새농사와 버섯, 양어, 축산가축들을 활성화하여 인민들이 살기 그 덕을 보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인의 지방공업공장들을 개선시키고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가야 하겠소니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시인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0일투쟁을 벌려야 하겠소니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업에 힘입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 평양시인민보안국에 전립

혁명사적비 《빛나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여》가 평양시인민보안국에 전립되였다.

평양시안의 인민보안기관들에서는 주체적인민보안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뜨겁게 기념하였다.

시인민보안국안의 인민보안원들과 중앙원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대 길이 전세강경의 한마음으로 헌사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시인의 지방공업공장들을 개선시키고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가야 하겠소니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시인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0일투쟁을 벌려야 하겠소니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업에 힘입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결사보위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인민보안원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믿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34(1945)년 9월 25일을 비롯하여 수십차례나 평양시안의 보안기관들을 찾으시고 인민보안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수도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세나 수도의 인민보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보안기관들에 거룩한 영도의 자욱을 주셨을 때부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를 전립하였다.

장원호 조선인민내무군 정치주장이 훈포장을 하였다.

연립자는 평양시인민보안국에 혁명사적비를 전립한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에서 모범이 되도록 세심의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인민보안사업의 방향과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평명한 내성교향보안원들을 보내주시어 이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며 인민보안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경성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립자는 모든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장병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길을 남가롭게 버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당과 제도, 인민을 굳건히 보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보안기관에 주신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이, 한결같은 양보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소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복속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창조된 수령보위의 영광스러운 진군을 이어경애하는 원수님을 헌신단결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온전히 풀이하고 인민보안사업에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돌격구를 열어제끼는데 적극이바지하여야 하겠소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이 바라는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야 혁명적인 학습업종을 일으켜 인민보안원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무의방패, 붉은 맹수로 만든이 준비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훈포장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혁명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자

평양곡산공장 종업원들의 령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곡산공장 종업원들의 령기모임이 22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조급당위원장 김인순의 보고에 이어 지대인 박형철, 직장장들인 김석일, 피영철, 로동자 조용휘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은 남썩도 아깝지 않게 당의 공장에 거룩한 영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공장의 현대화향상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이 바라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으면 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에 주체회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지역사회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파사적인 공장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어 인민중시, 인민

중중,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갈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제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대로 식료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공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하겠소니다고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방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성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올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길잡이 되고 더 힘차게 일터에서 일하는것을 명심하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 원로, 지재의 국산화를 철저히 실현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설비들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애호 관리하고 민부하로 돌려생산성향화의 동용을 세차게 올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기술기 능수준을 무던히 높이고 생산문화, 생활

문화회화사업을 더욱 잘하며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총성의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생산자대중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하려면 우리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는 편지가 재워졌다.

녀맹일군들과 녜맹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녜맹일군들과 녜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가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였다.

답사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과 보천보혁명전적지, 청봉속역지, 무산지구전투승리 기념탑, 삼지연못가에 놓여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 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명령의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참가 인사를 드렸다.

력사의 땅 보천보에서 그들은 보천보전투지 위치, 경찰관주재소, 민사부소 등을 돌아보면서 보천보전투를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항일혁명투쟁사

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보시리샘물터와 증용동굴을 거쳐 청봉속역지, 전상동역지를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전투의 결에서 남긴 거룩한 자욱이 어머없는 혁명사적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백두산밀영고향집드락에 돌아선 그들은 백두평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으로 돌리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어린시절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을 보여 이바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천지의 장쾌한 전경과 아득한 밀림을 바라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군시대 내성혁명가로서의 사명

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삼지연대기념비의 무주제군상을 삼지연못가의 혁명사적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사들이 발휘한 투쟁의 수명철사용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진 삼지연의 어마못을 돌아본 답사자들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양을 전심전력 전하고있는 고무경비도령을 따라 행군하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참관하였다.

답사기간 그들은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를 참관하였으며 회상기발모임, 시랑송발모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분노의 목소리 오늘도 울린다-피맺힌 원수들과 대를 두고 결산하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날에 즈음한 성토모임 진행

【평양 6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이 22일 미제침략선 《서면》호적침략기념일에 서 진행되었다.

주영길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중앙시당위원회 부위원장, 직맹일군들, 로동자들,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미제의 만행체첩자 김명진이 먼저 발언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우회시기 미제가 신천 땅에서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살육만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무고한 주민들과 애국자들을 찢어죽이고 쓰어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고 생체장해죽였으며 몸을 팔라고 목놓아우는 어린이들의 머리위에 휘발유를 부려 불태워죽이던 살인미제의 만행을 눈앞에 흉이 들어가고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미제야말로 인부집을 쓴 야만의 무리,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극악한 원수들이라고

말하며 단죄규탄하였다. 미제가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을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도 남조선에 계속 끌고있어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불어넣어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이어 수도건설위원회 직맹위원장 한계일, 문수부대도전자사업소 로동자 서명진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그들은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이하는 시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가슴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을 새미로 만들었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한 철천지원수 미제에 대한 사투린 증오와 복수심으로 세차례 뛰어넘어갔다고 말하였다.

세월은 흘러 모든것이 달라졌지만 백년속적 미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필적의 의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활화산처럼 불타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강성대국을 가로

막아보려고 미쳐달뛰는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보복 열기가 하늘에 닿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조국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회색의 천출명장이신 조승일이 행정은중지의 두리에 천검단검의 생세를 이룬 원한군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세 세대 복수자들은 미제가 이 땅에서 끝끝내 침략 전쟁을 도발한다면 인민군대와 함께 정의의 성령에 용약 떨쳐나서 상상할수 없는 보복전으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악의 소굴이 이 행정을중지의 두리에 생지 못하게 재가꾸로 만들어

놓을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로동자들은 철천지원수 미제에게 무자비한 질투를 내리는 성정으로 당 제7차대회 결성만행을 위한 중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전경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시대적역은 계속되고있다. 그중에서도 1951년 1월 3일의 폭격은 제일 참혹하였다. 이날 미제의 (B-29)형 폭격기 80여대는 평양을 폭격하였다.

《현재(1951년 5월현재)과 비교되는 실지 100배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남은것이 없어 파어진 땅에는 아직도 야만적인 폭격이 계속되고있다.》

《미제공중비행단은 황천에만 하여도 3만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것은 약백을 헤를러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조국과 인민을 뭉친 민족면역자의 행로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 조국앞에 전쟁의 참화가닥쳐왔을 때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과 같이 학위계급의 잔여분자가 아닌자들도 있었다. 계급적근본을 보면 원수들에게 살 하통의 이유가 없는자들이 미제침략자들의 앞잡이로 나서서 자기의 조국, 자기의 인민을 배반하여 투항한 자들이었다.》

《이제 공중비행단은 황천에만 하여도 3만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것은 약백을 헤를러

끝나지 않은 전쟁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반미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감행된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고발한 국제조선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시대적역은 계속되고있다. 그중에서도 1951년 1월 3일의 폭격은 제일 참혹하였다. 이날 미제의 (B-29)형 폭격기 80여대는 평양을 폭격하였다.》

《현재(1951년 5월현재)과 비교되는 실지 100배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남은것이 없어 파어진 땅에는 아직도 야만적인 폭격이 계속되고있다.》

《미제공중비행단은 황천에만 하여도 3만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것은 약백을 헤를러

한 나라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미제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북한물처리대 대원들의 미더운 모습에 안겨오는듯싶었다.

그들의 전열에는 북한물처리전에서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수호자들의 군상이 있었다.

김금수, 한병만, 최용일, 오명수, 현명철, 김성철... 이 땅속에는 결코 은근보화만이 가득한것이 아니다. 미제가 남긴 북한물처리대 오존도 우리의 행복을 노리고있다.

정명 우리가 믿고있던 이 땅속에는 미제놈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인민들의 피, 조국의 산맥을 지켜낸 수호자들의 선혈이 흐르고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평범한 한 시인이 쓴 시의 한구절로 이야기를 마친다.

... 아이 한점 피의 지층을 있다면 우리가 쌓아가는 행복의 그 모든것을 잃게 되나니 내 이 지층을 이 땅의 역사 계급사에 피의 교본으로 새겨 놓으리라 후대들이 대를 이어 영원의 임도록-

단것처럼 사회주의사회의서 태어났다고 하여 누구나 사회주의조국의 아들딸이라고 말할수 없다. 자기의 근본을 저버리던 중당에는 사회주의를 조롱하는 기생충으로, 계급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나아가서는 조국과 인민의 원수, 혁명의 원수가 된다는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신천대중학살사건공판기록을 통하여 우리모두가 새겨야 할 또 하나의 진리인것이다.

60여년의 오랜 세월속에 어느덧 누렇게 피색된 책, 그 한줄한줄에 대대손을 얹어 두루고도 전체가 한 울퉁한 질리, 계급주의의 진리가 담긴 옛 공판기록, 그것을 갈라갈라 번지며 나는 생각하였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 목마름이 지치고 땀방울이 떨어질 때, 어떤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때 이 책을 펼쳐서라도, 계급적근본과 자각을 저버린자들에게 내린 혁사의 판결, 준엄한 선고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삼라리고.

본사기자 허병숙



평양시에서 열린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성토모임 모습

산천초목도

치를 떠는 원한의 상처

지난세기 조선은 장성한 원수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영원히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남겼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울수 없고 가라울 수 없는 원한의 상처는 오늘도 백년속적 일제의 극악무도한 죄행을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아래에 그 일부를 전한다.

문필봉의 쇠말뚝자리

1943년 어느날 삼주군의 문필봉이 라는 산봉우리에서 굉장한 금맥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여기 저기 살같이 퍼졌다. 일제의 학정됨에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곳으로 몰려들어 갔다. 그러나 이 곳은 갈수록 더 지어날 수도 없는곳이다. 산꼭대기에서는 에로부르 부기 드문 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곳을 붓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문필봉이 있다고 부르고있다. 이것을 안 해들은 이

80살 난 <소년>

중산군 신촌리에 한일용이라는 로인이 살고있다. 이른이러고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1m의 키, 기형적인 육체, 성장발육부진으로 그는 80나이가 된 오늘날까지 《소년》으로 불려온다. 《소년》으로 불려온 생을 이어가고있다. 그는 타고난 불구가 아니었다.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온 집안사람들의 기쁨과 놀라움은 참으로 컸다. 갓난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만큼 큰 허우대, 우렁찬 울음소리... 제다가 태어나 1년이 못되어서는 겨드랑이를 비롯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백세의 웨침이 아니었다. 용담같은 심장들에서 솟아나는 거센 침전의 불꽃이었고 천백대의 피에 대한 무자비한 결산이후의 미제의 멸망에 대한 이후의 선언이었다. 신천박물관에서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죽는 것은 혁명가의 창된 인성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참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형장에서(김일성장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외친 최용일 동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금지와 자부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제부도 필감하고 그 어떤 억측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만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의 최우용업업이 된다. 신천박물관-계급교양대학에서 세운 피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아깝고 죽어도 혁명신념 변하지 않는 계급의 전위투사, 천재적기행자가 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과 피의 적미향의 항쟁을 끝까지 끝까지 싸우었다.》

우리는 신천박물관의 피의 교본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급의 알남,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세심무조하게 하며 제2의 신천대살육만행은 꿈꾸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항복시켜 도장을 찍을 눈도 없

수필

옛 공판기록을 더듬으며

단한 경위를 말하리라. 대담:제가 사행행위에 가담하게 된것은 1950년 10월 중순 미군이 신천군에 들어와서부터였습니다. 미군이 신천군에 들어온 이튿날인 10월 18일 신천군주둔 미군지휘관인 해리슨은 지난날의 지주, 자본가들과 과거에 일본놈들에게 붙어살던 사람들,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그리고 저와 같은 불망청소원들을 끌어모아 경찰대, 치안대, 무장학생대 등 반동단체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는데...》

벌적자의 자백은 참으로 많은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어

개성시 계급교양관에서

주변계급교양계획을 실행없이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고 있다. 계급교양관에서는 중요전투장소에서 진행할 이공정의와 후회강의준비사업을 짜고두고 강사들이 강의를 능숙하게 할수 있게 준비시켰다. 그리고 정령보령들과 이 공정을 오해받은 살아온 로인들을 찾아 계급교양관과 관련된 강의를 잘 만드는 데 힘을 넣었다.

계급교양관에서는 강사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고있다. 또한 강사들이 이공정의와 시와 노래 등을 배합하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게 준비시켰다. 강사들은 이공정의관리를 잘 할수있고 강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강사 홍철규, 유정심, 손효숙, 비옥만, 왕숙경등들은 강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이것이 왜였다는 질문을 다지제 된다!... 《도이힐트드만제연단 위원장 미하일 코프》

《신천박물관의 피의 교본을 우리에 심어주어 새겨주고 미제에게 복수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 것 그리고 일본에 살아도 조선사람으로 살아가는것이었고 고 생각을 했습시다.》(조선대 학교 리준영)

... 평화의 파괴자가 누구이며 인류의 공동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신천은 온 세상에 특별히 전하고있다. 이 땅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대비할수 없는 뒷면, 뒷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천백대의 참화와 재난, 파괴와 살육을 잊어낸 혁명열을 일으키고 미친듯이 날뛰는 미제외의 판가리결전을 눈앞에 뚫은 원한군이 아니라고 하여 누구나 사회주의조국의 아들딸이라고 말할수 없다. 자기의 근본을 저버리던 중당에는 사회주의를 조롱하는 기생충으로, 계급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나아가서는 조국과 인민의 원수, 혁명의 원수가 된다는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신천대중학살사건공판기록을 통하여 우리모두가 새겨야 할 또 하나의 진리인것이다.

60여년의 오랜 세월속에 어느덧 누렇게 피색된 책, 그 한줄한줄에 대대손을 얹어 두루고도 전체가 한 울퉁한 질리, 계급주의의 진리가 담긴 옛 공판기록, 그것을 갈라갈라 번지며 나는 생각하였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 목마름이 지치고 땀방울이 떨어질 때, 어떤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때 이 책을 펼쳐서라도, 계급적근본과 자각을 저버린자들에게 내린 혁사의 판결, 준엄한 선고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삼라리고.

본사기자 허병숙

세계의 그 어느 박물관이나 신천박물관의 감상을 적는 책이 있다. 허나 신천박물관의 감상을 적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오와 복수의 기록만을 남긴다. 그것은 이 땅에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수 미제와 천백대의 결심할 활화산같은 증오와 복수로 살인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살고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천박물관은 반세 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이고 복수기록의 박물관이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잔인한 학살만행을 밝히는 역사적 고보장입니다.》

한강도 한강... 신천박물관의 감상을 먼저는 우리의 눈앞에 피방울과도 같은 글자들이 안겨온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잔인성과 악랄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신천박물관을 돌아보고 참관자들이 입술을 깨물며 토박토박 박아 쓴 글자들은 글자라도 서슬무른 필력이 되어 입필정만 같다. 조선인민군 군인 조영국은 감상속에 이렇게 썼다. 《가슴속에서 증오와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무자비한 필적의 의지가 피를 끓인다. 그 불길은 절대로 꺼지지 않으리라. 미제원수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는 그날까지!》

상원세력도련합기업소 전대장 동우의 글은 한자한자가 그대로 이글거리는 증오의 불명이었다. 《반미반일선 전으로서 발발

신천박물관의 감상을 적는 책이 있다. 허나 신천박물관의 감상을 적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오와 복수의 기록만을 남긴다. 그것은 이 땅에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수 미제와 천백대의 결심할 활화산같은 증오와 복수로 살인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살고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천박물관은 반세 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이고 복수기록의 박물관이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잔인한 학살만행을 밝히는 역사적 고보장입니다.》

한강도 한강... 신천박물관의 감상을 먼저는 우리의 눈앞에 피방울과도 같은 글자들이 안겨온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잔인성과 악랄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신천박물관을 돌아보고 참관자들이 입술을 깨물며 토박토박 박아 쓴 글자들은 글자라도 서슬무른 필력이 되어 입필정만 같다. 조선인민군 군인 조영국은 감상속에 이렇게 썼다. 《가슴속에서 증오와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무자비한 필적의 의지가 피를 끓인다. 그 불길은 절대로 꺼지지 않으리라. 미제원수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는 그날까지!》

상원세력도련합기업소 전대장 동우의 글은 한자한자가 그대로 이글거리는 증오의 불명이었다. 《반미반일선 전으로서 발발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백세의 웨침이 아니었다. 용담같은 심장들에서 솟아나는 거센 침전의 불꽃이었고 천백대의 피에 대한 무자비한 결산이후의 미제의 멸망에 대한 이후의 선언이었다. 신천박물관에서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죽는 것은 혁명가의 창된 인성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참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형장에서(김일성장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외친 최용일 동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금지와 자부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제부도 필감하고 그 어떤 억측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만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의 최우용업업이 된다. 신천박물관-계급교양대학에서 세운 피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아깝고 죽어도 혁명신념 변하지 않는 계급의 전위투사, 천재적기행자가 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과 피의 적미향의 항쟁을 끝까지 끝까지 싸우었다.》

우리는 신천박물관의 피의 교본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급의 알남,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세심무조하게 하며 제2의 신천대살육만행은 꿈꾸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항복시켜 도장을 찍을 눈도 없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백세의 웨침이 아니었다. 용담같은 심장들에서 솟아나는 거센 침전의 불꽃이었고 천백대의 피에 대한 무자비한 결산이후의 미제의 멸망에 대한 이후의 선언이었다. 신천박물관에서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죽는 것은 혁명가의 창된 인성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참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형장에서(김일성장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외친 최용일 동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금지와 자부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제부도 필감하고 그 어떤 억측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만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의 최우용업업이 된다. 신천박물관-계급교양대학에서 세운 피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아깝고 죽어도 혁명신념 변하지 않는 계급의 전위투사, 천재적기행자가 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과 피의 적미향의 항쟁을 끝까지 끝까지 싸우었다.》

우리는 신천박물관의 피의 교본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급의 알남,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세심무조하게 하며 제2의 신천대살육만행은 꿈꾸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항복시켜 도장을 찍을 눈도 없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백세의 웨침이 아니었다. 용담같은 심장들에서 솟아나는 거센 침전의 불꽃이었고 천백대의 피에 대한 무자비한 결산이후의 미제의 멸망에 대한 이후의 선언이었다. 신천박물관에서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죽는 것은 혁명가의 창된 인성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참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형장에서(김일성장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외친 최용일 동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금지와 자부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제부도 필감하고 그 어떤 억측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만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의 최우용업업이 된다. 신천박물관-계급교양대학에서 세운 피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아깝고 죽어도 혁명신념 변하지 않는 계급의 전위투사, 천재적기행자가 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과 피의 적미향의 항쟁을 끝까지 끝까지 싸우었다.》

우리는 신천박물관의 피의 교본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급의 알남,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세심무조하게 하며 제2의 신천대살육만행은 꿈꾸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항복시켜 도장을 찍을 눈도 없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백세의 웨침이 아니었다. 용담같은 심장들에서 솟아나는 거센 침전의 불꽃이었고 천백대의 피에 대한 무자비한 결산이후의 미제의 멸망에 대한 이후의 선언이었다. 신천박물관에서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죽는 것은 혁명가의 창된 인성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참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형장에서(김일성장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외친 최용일 동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금지와 자부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제부도 필감하고 그 어떤 억측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만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의 최우용업업이 된다. 신천박물관-계급교양대학에서 세운 피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아깝고 죽어도 혁명신념 변하지 않는 계급의 전위투사, 천재적기행자가 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과 피의 적미향의 항쟁을 끝까지 끝까지 싸우었다.》

우리는 신천박물관의 피의 교본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급의 알남,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세심무조하게 하며 제2의 신천대살육만행은 꿈꾸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항복시켜 도장을 찍을 눈도 없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백세의 웨침이 아니었다. 용담같은 심장들에서 솟아나는 거센 침전의 불꽃이었고 천백대의 피에 대한 무자비한 결산이후의 미제의 멸망에 대한 이후의 선언이었다. 신천박물관에서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죽는 것은 혁명가의 창된 인성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참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형장에서(김일성장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외친 최용일 동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금지와 자부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제부도 필감하고 그 어떤 억측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만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의 최우용업업이 된다. 신천박물관-계급교양대학에서 세운 피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아깝고 죽어도 혁명신념 변하지 않는 계급의 전위투사, 천재적기행자가 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과 피의 적미향의 항쟁을 끝까지 끝까지 싸우었다.》

우리는 신천박물관의 피의 교본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급의 알남,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세심무조하게 하며 제2의 신천대살육만행은 꿈꾸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항복시켜 도장을 찍을 눈도 없

이 땅의 복수기록장에는 마지막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백세의 웨침이 아니었다. 용담같은 심장들에서 솟아나는 거센 침전의 불꽃이었고 천백대의 피에 대한 무자비한 결산이후의 미제의 멸망에 대한 이후의 선언이었다. 신천박물관에서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죽는 것은 혁명가의 창된 인성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참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형장에서(김일성장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외친 최용일 동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히 들려온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금지와 자부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제부도 필감하고 그 어떤 억측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만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의 최우용업업이 된다. 신천박물관-계급교양대학에서 세운 피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아깝고 죽어도 혁명신념 변하지 않는 계급의 전위투사, 천재적기행자가 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과 피의 적미향의 항쟁을 끝까지 끝까지 싸우었다.》

우리는 신천박물관의 피의 교본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급의 알남,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세심무조하게 하며 제2의 신천대살육만행은 꿈꾸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항복시켜 도장을 찍을 눈도 없



신천박물관에서 전시된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성토모임 모습

